

“우리집에도 다시 봄이 찾아올까요”

- 정인자(가명) 어르신 부부 이야기 -

정인자(가명) 어르신의 남편 김동춘(가명)님은 여든이 넘은 시각장애인이십니다. 때문에 실질적인 가장인 정인자 어르신은 봉제기술을 가지고 있어 공장에서 일감을 집으로 가져와 생계를 꾸려가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왔습니다. 김동춘 어르신은 이런 아내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천정벽력 같은 소식이 부부에게 찾아옵니다. 정인자 어르신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암 투병으로 팔이 자주 붓고 손에도 힘이 없어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게 되었고, 통증으로 붕대를 매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병으로 인해 봉제 일도 할 수 없게 되어 치료는커녕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 연탄 값도 마련하기 어려워 부부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햇살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어르신의 가정은 아직도 추운 겨울입니다.

이 가정에 다시 웃음과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정인자님의 치료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 ☎ 02-3396-1004